

한 환자에서의 비호지킨 림프종(NHL)과 아밀로이드증이 같이 진단된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여의도성모병원 내과

박준하, 전영우

서론: 아밀로이드증과 NHL의 연관성은 드물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그간 보고된 몇 증례에서도 AL type-아밀로이드증과 NHL의 연관성이 보고된 것이 주였으며, 주로 류마티스질환등 전신염증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AA type-아밀로이드증과 NHL의 동시발견은 매우 드문 예이다. 한곳의 조직에서 두 가지 질병이 동시 진단된 희귀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당뇨병과 갑상선기능 항진증을 기저력으로 가지고 있는 46세 여환 내원 10년 전에도 수주일 동안 지속되는 열과 빈혈로 골수검사 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던 자로 지속하여 만져지는 오른쪽 목의 종괴로 타원에서 시행한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만 발견된 환자로, 다른 의견 위해 본원 내원하였다. 림프종 의증으로 오른쪽 목 림프절의 절제 생검을 시행하였으며 Congo-red positive, KMNO4 전처치시 negative[Figure1-c,d]인 AA type-아밀로이드증과 CD20 positive[Figure1-b] CD3 negative인 small sized B-Cell lymphoma[Figure1-a]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골수검사에서 림프종의 골수침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으로 보기엔, 이완성심부전, 심비대등 보이지 않았으며 신장기능 또한 이상 없었으며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지 않아 Small sized B-cell lymphoma(결절외변연부세포림프종)에 준해 Rituximab 기반으로 1차-6차 R-CVP 요법 시행하였으며 이어 B-R 항암 치료종언자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고찰: NHL과 아밀로이드증 연관성은 드물며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나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케이스로 꼽히는 AA type의 아밀로이드증과 NHL가 한 조직에서 같이 진단된 국내 증례를 보고 하는바 이며 임상증상이 강하게 의심된다면 병리 조직검사를 반복, 리뷰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증례였다.

